

전북도민일보

군산부설초, 유정 작가 초청 '동시와 동요의 아름다운 만남' 북(book)콘서트

김미진 기자 | 승인 2025.07.01 17:00 | 댓글 0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지난 30일 교내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에서 '동시와 동요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북콘서트를 열었다.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지난 30일 교내 창의융합형 정보교육실에서 '동시와 동요의 아름다운 만남'을 주제로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동시집 '별처럼 꽃처럼'의 저자 유정 작가를 초청해 2학년 학생들과 함께 동시의 세계를 탐색하고 동요를 감상하는 특별한 자리로 마련됐다.

1부 '마음 열기'에서는 유정 작사가 쓴 '우리들의 꿈'을 감상하며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어진 '동시로 풍덩' 시간에는 동시의 개념, 낭송법, 주요 작품 12편 소개와 낭독을 통해 학생들과 깊이 교감했다. 그림과 사진 자료를 활용한 질의응답도 활발히 진행됐다.

2부 '동시랑 동요'에서는 김신철 교장이 '님이 오시는지'를 직접 낭송하며 감동을 전했으며, 유정 작사의 동요 3곡('빗방울 목걸이', '마법미용실', '별처럼')은 익산궁동초 6학년 김시은, 이리동남초 2학년 이가현 학생의 이중창으로 무대를 빛냈다. 앵콜곡 '모두 다 꽃이야'도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말미에는 대표 학생들의 소감 발표와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됐다.

김신철 교장은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아이들이 문학적 감수성과 인성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김미진 기자